

5-2강 file no.1

5주-2회차

분트의 이론체계,
분트의 제자들
19세기말 다른 심리학자들

5-2-1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심리학사 5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분트의 심리학 이론 체계, 분트의 제자들, 19세기 말에 분트 이외의 다른 학자들의 생각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5주 2회 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2강 file no.2

5주-2회차

분트의 이론체계,
분트의 제자들
19세기말 다른 심리학자들

5-2-1

5주 2회 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분트의 이론체계를 보고 분트의 제자와 다른 관점의 학자들, 그 다음에 분트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2회 차 학습목표를 보시면 분트가 제시한 이론 체계의 요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론, 심신관계, 의식과 통각, 정서 등에 관한 분트의 이론적 입장 등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분트의 제자들과 분트와는 다른 입장을 전개한 심리학자들의 주요 주장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분트의 공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5주-2회차 학습 목차

- 1. Wundt의 이론체계
- 2. Wundt 제자들, 19세기말 다른 심리학자들
- 3. Wundt에 대한 종합 평가

5-2강 file no.3

5-2강 file no.4

5주-2회차 학습 목표

- 1. 분트가 제시한 이론체계의 요점을 이해한다
 -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론
 - 심신관계
 - 의식과 통각
 - 정서 등에 대한 분트의 이론적 입장을 이해한다
- 2. 분트의 제자들과 19세기말의 다른 심리학자들의 주요 주장을 이해한다
- 3. 분트의 공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파악한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서 분트의 이론체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분트의 이론 체계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같이 심리 현상의 하나만을 애길 했다든지 한 번 얘기하고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심리현상의 여러 측면을 얘기하고 자기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론을 수정, 보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분트의 이론 체계를 짚막하게 요약해서 통일성 있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분트는 심리 관련 현상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체계화해서 제시했고, 각 현상에 대해서 생리학적 근거, 실험적 결과와 연결지으려 했고, 경험적 데이터와 연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심리현상 전반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자연히 분류적 체계 성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실험의 바탕에서 이론 체계를 정비를 했지만 모든 실험에 대한 결과들이 미리 다 나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심리 실험 결과들이 축적되기 이전에 심리현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분트에 있어서 이론체계 형성은 실험을 통한 입증보다는 demonstration, 예시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학문이든 학문 형성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강 file no.5

1. Wundt의 이론 체계

- <<Wundt의 이론 체계 >>
 - 심리학 관련 현상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고,
 - 각 현상에 대하여 생리학적 근거, 실험적 결과와 연결 지으려 함,
 - 그러한 면에서 분류적 체계의 성향이 있었음.

 - 실험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론적 체계를 전개하였으나 분트에게서의 실험은 입증보다는
 - 예시의 성격이 강하였다.
 - ← 학문 형성 초기에 일어나는 상황.

분트 심리학의 이론체계의 발전을 네 단계로 나눠서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1860년대에는 첫째단계로 형성 단계인데 초기적 영역구분 및 지각 감각, 감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요소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감각과 감정이고 여기에 의지가 개입돼서 무의식적 추론을 해서 주어진 감각 내용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런 관념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생리 심리학 책을 저술하고 마음의 요소를 조합하는 원리를 제기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생리 심리학을 강조하고 마음의 요소를 분석하는데 통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리 심리학의 개론, 기초를 제시를 했는데, 감각 요소의 속성으로써 감정이 추가되는 그런 이론적 발전 단계가 제시가 됐고, 감정의 삼차원을 분석해서 감정의 삼차원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1902년대 이후에는 생리 심리학을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두고서 보안을 하고 통각 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점차 문화 심리학적 연구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트의 이론 체계의 기초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분트는 심리학은 경험 과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험(Erfahrungs), 과학(Wissenschaft)적 지식. 그는 헤르바르트나 페크너 등에 남아있던 형이상학적 측면을 제거하고 경험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선대의 다른 학자들처럼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을 구분하는 것을 조금 반대했습니다.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의 구분은 옛날 플라톤 이래 이슬람의 이브 시나나 중세 라틴 르네상스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구분 시도가 전하여져 내려왔는데, 분트는 이런 구분을 반대하고 심리학은 내적 감각이 아니라 직접적, 현상적 경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칸트의 영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2강 file no.6

- [분트 심리학 이론의 발전 4단계]
 - 1. 1860년대: 형성단계
 - 초기적 영역구분 및 지각, 감각, 감정에 대한 기초 이론 제시
 - 무의식적 추론 원리 -> 감각, 감정
 - 2. 생리심리학 저술: 마음의 요소 조합: **doctrine of compounding**
 - 마음을 요소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고, 이 요소들은 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그러나 통합 **synthesis**가 중요하다
 - 3. 1896: Grundriss - 감각 요소의 속성으로서 감정이 추가됨
 - 감정의 3차원 이론: 쾌-불쾌, 긴장-이완, 흥분-안정
 - 4. 1902-1903: 생리심리학 5판:
 - 감정은 통각의 체험적 증후, 문화-민속심리학

5-2강 file no.7

- [체계의 기초]
 - 심리학은 경험과학; **Erfahrungs-wissenschaft**;
 - Herbart, Fechner 등에 남아있던 형이상학적 측면을 제거함.
 - 반 형이상학적 경향의 시작
 -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의 구분 반대;
 - 내적감각에 대한 과학이 심리학이 아니다.
 - 심리학은 내적 감각이 아니라 직접적, 현상적 경험을 다룬다.

5-2강 file no.8

-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은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
- 심리학의 주제가 직접적 경험이라면
- 심리학의 방법론은 스스로 자신의 심적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라야 한다.
- 고로 내성법 **introspection** 또는 자기관찰 **Selbst-beobachtung**이 심리학의 방법이여야 한다.

그는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은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고 보고 심리학의 주제가 직접적 경험이라면 심리학의 방법론은 스스로 자신의 심적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성법, 혹은 자기관찰(Selbst beobachtung)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Selbst) 관찰하는 (beobachtung), 그런 것이 심리학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5-2강 file no.9

- 심리학은 마음의 과학, 의식의 과학
- 의식
 - 직접경험 - 주관적 경험 - 감각, 정서
 - 매개 경험 - 객관적 경험/ 주관적 요소 제거된 경험 - 물리적, 사회적
- 의식의 요소
 - 감각과 감정
 - 이 요소들은 특정 차원에 따라 세분화 가능
 - 감각질, 강도, 지속의 차원
- 관찰 - 경험적 사실
 - 직접 경험 immediate experience - 심리학의 주제
 - 매개 경험 mediate experience
 - 물리학과 다른 과학의 관찰 기초

심리현상에 대한 분트의 이론체계를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분트는 심리학은 마음의 과학, 의식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은 직접 경험과 매개 경험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직접 경험은 주관적 경험, 즉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각과 정서라는 요소로 분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경험은 물리적 사회적 경험으로 객관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관적 요소가 제거된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의식의 요소는 감각과 감정의 둘로 나눌 수 있겠고, 이 요소들은 특정 차원에 따라서 더 세분화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각질, 강도, 그리고 의식 경험이 지속되는 세 차원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트는 직접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직접 경험이 심리학의 주제라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의 연구 문제는 무엇인가 물음을 던졌을 때에,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연구 문제는 의식을, 마음의 내용을 요소로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요소들 사이에 연결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결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마음의 하위 과정 연구에는 적절하나 상위 현상, 언어나 사회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트는 생각하였습니다. 분석도 중요하지만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의식의 요소, 마음의 요소는 내성을 하면 바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5-2강 file no.10

- -심리학의 연구 문제는
 - 1. 의식을 요소로 분석하는 것
 - 2. 이 요소들 사이의 연결 양식을 결정하는 것
 - 3. 연결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다
 - 심리학의 목표는 마음을 분석하며 단순 특질로 분해하는 것이며 그 요소들이 보이는 다양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마음의 하위 과정 연구에는 적절하나 상위 현상 - 언어, 사고-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분석도 중요하지만, synthesis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 *요소는 우리가 내성을 하면 바로 드러내어진다.

10

5-2강 file no.11

- [심적 과정]
 - 마음은 수동적 요소 substance가 아니라,
 - actuality, 활동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며, 과정적이다
- [방법론]
 - 자극을 객관적으로 통제하여 제시, 관찰하는 단계에는 과학적 실험 방법을 사용
 - 자극이 일으키는 마음(의식)의 요소들을 감각 요소로 분해하는 과정에는 내성법을 사용
 - 문화/사회적 집단심리의 내용 분석에는 역사적/문화적 방법을 사용

11

또한 심적 과정을 논하자면, 분트에 의하면 마음은 수동적 요소가 아니라 Actuality, 활동성을 지니고 있고, 실현성을 지니고 있고, 고정되어있지 않고 역동성을 지니며, 과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면 그것이 마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활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새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1회 차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트와 그의 실험실에서 수행된 심리학적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현대적 의미의 인지심리학적 실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고 내성을 통해서 감각의 요소, 감정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면, 현대적 의미의 인지 심리학적 실험 연구가 분트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응 시간 측정 과정을 요소로 분석하고 과정별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분트 자신은 단순 심리 과정을 실험적 연구 과정에 의해 접근하지만, 복잡한 고

등 심리 과정은 실험에 의해서 연구가 모두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이야기, 문화, 역사 등의 사회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정신(심리) 과정을 정확히 내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고차 심적 내용은 언어와 같은 외적 사물에 대해서만 연구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언어는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사회, 역사, 문화를 분석하고 연구해야 개인의 고차 심적 과정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5-2장 file no.12

- 분트와 그의 실험실에서 수행된 심리학적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현대적 의미의 인지심리학적 실험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 물론 분트 자신은 단순심리과정은 실험적 연구에 의해 접근하지만,
- 복잡한 고등심리과정은 실험에 의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이야기, 문화 등의 사회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 고등 정신과정들을 정확히 내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왜냐하면, 고등정신 과정에 대한 실험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없으며, 관찰되는 현상 자체에 내성을 통할 수 없으며, 주의를 정확히 통제 할 수 없으며, 내성의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 의식 경험은 언어와 같은 외적 산물에 의해서만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2

5-2장 file no.13

- [마음(의식)의 요소]
 - 기본요소: 감각과 감정
 - 이 요소들 나름대로 속성이 있다
 - 질
 - 강도 등
 - 이 요소들을 전통적인 연합주의 원리에 따라 연합과정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 연합의 결과로 새로운 내용이 형성될 수 있는 창조적 통합적 연합을 인정함

13

다시 마음 요소 문제로 넘어가면, 분트는 마음의 기본 요소는 감각과 감정이고 이 요소들 나름대로 속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 요소의 질(Quality)이나, 강도나, 지속 기간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트는 이 요소들을 전통적인 연합주의에 따라서 연합 과정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연합 과정의 결과로 새로운 내용이 형성 될 수 있는 창조적 통합적 연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지난 1회 차에서 얘기를 한 마음의 통각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냅니다.

통각(apperception)이라는 것이 분트에게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헤르바르트나 그 앞에서 칸트 등에서 있었던 개념이고 라이프니츠에 의해서도 있었던 개념입니다.

분트에게서 통각은 요소도 아니고 요소의 복합도 아닌 그 것을 넘어서는 현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감각 자극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의하는 주의의 장(field)이 있는데 이 장에서 주의의 초점에 들어오면 자극의 내용이 통각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의 내용, 경험의 내용이 통합되는 것이죠.

통각에는 활동적인 측면이 있고, 그 느낌(feeling)이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트가 모든 의식 또는 마음 내용에는 정서가, 감정이 연결 되어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각은 단순한 연합과는 다르기에, 통각은 논리적이지만 기계적 연합은 비논리적이며, 통각은 인지적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각은 인간의 의지, 수의성인데 의지가 작용해서 뭔가를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통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능동적 연합은 통각, 또는 통합적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반 연합은 수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의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분트는 마음의 내용을 내성법을 통해서 요소들로 분석하고 이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요소의 연합, 통합이 아닌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강 file no.14

• [통각, apperception]

- 1. 현상적임: 통각은 요소도 아니고 요소의 복합도 아닌 현상적인 것이다.
 - 주의의 장(field)이 있고
 - 이 장에서 주의의 초점 Blickpunkt에 들어오면 통각되는 것이다.
 - 주의 범위: 통각에는 활동의 느낌이 따른다
 - feeling is the sign of apperception and thus its phenomenal representative.
- 2. 통각은 연합/연상과 다르다.
 - 통각은 논리적이거나 연합은 비논리적이다.
 - 통각은 인지적 기능
- 3. 통각은 활동적이다. 의식의 흐름에서 있는 것

14

분트는 심적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현상계에서의 인과성과 심리적 현상계에 있어서의 인과성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리적 현상계에서의 인과성은 기계적 인과성이고 주어진 것들이 단순히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나 결합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분트에 의하면 심리적 현상계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논문에서 보면 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여기서 네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creative synthesis, 창조적 통합. 즉, 요소들의 단순 조합이 아니라 창조

적 융합,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psychic relations, 심적 내용은 그 것과 관계있는 다른 것에 의해서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정신 물리적 법칙조차 실제로는 마음의 법칙, 심리적 사건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조금 특이하게 대비를 강조했는데, 대비되는 것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그런 입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2장 file no.15

- 능동적 연합은 통각 **apperception**
- 일반 연합은 수동적
- 연합의 유형:
 - fusion,
 - assimilation(유사, 대비에 의한),
 - complications(감각 양상이 다른 경우의 복합: 청각-시각),
 - memorial associations.
- 마음의 내용을 내성법을 통하여 그 요소들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설명하는 접근

15

- [심적 법칙]
 - 물리적 현상계에서의 인과성과, 심리적 현상계에서의 인과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
 - 심리적 세계에서의 인과성은 일정한 연계, **sequence**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1. creative synthesis;
 - 요소들의 단순 조합이 아니라 창조적 융합, 생성의 법칙
 - 2. psychic relations;
 - 심적 내용은 그것과 관계있는 다른 것들에 의하여 의미를 지님
 - 3. 정신물리적 법칙 조차도 실상은 심리적 사건 간의 법칙이다.
 - 4. law of psychic contrast: 대비되는 것이 서로 강화한다

16

5-2장 file no.16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삼차원 이론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정서는 기억, 사고 등의 인지적 마음의 내용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하위 요소 정서를 분석할 수 있겠고, 정서의 요소적인 측면은 3개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쾌 - 불쾌], [긴장 - 이완], [흥분 - 침잠]의 3개 차원으로 정서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에서 요인 분석이

론을 통해서 이런 저런 차원이 나오게 되는데 분트의 정서 이론은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신 관계에 대해서는 마음과 신체는 상호 비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행적, 병렬적이다. 그런 얘기를 분트가 했는데, 분트는 마음과 신체를 별개로 생각해야한다고 보고, 물리적 환경 조건이 신체와 마음에 동시에 병행적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도 없으며 상호작용도 없는 병행적인 것이라는 식의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병행적인 입장은 독일의 분트 이전의 학자들의 입장들에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장 file no.17

정서의 3차원 이론

- 정서는 기억, 사고 등의 인지적 마음의 내용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요소 정서를 분석할 수 있다
- 정서의 요소적 측면은 3개의 차원 중심으로 분석가능하다
 - Pleasure/displeasure
 - Tension/relaxation
 - Excitement/depression
 - → 현대 정서의 요인 이론과 같음

17

5-2장 file no.18

• [심신관계]

- 마음과 신체는 상호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행적, 병렬적이다
- 어떤 물리적 환경 조건이 신체와 마음에 동시에 병행적 사건을 일으킨다.
-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으며 상호작용도 없는 병행적인 것이다.

18

분트의 이론들의 종합

- 자연과학과 심리학을 구분
- 자연과학: 외계의 객관적인 대상을 연구
- 심리학; 즉시적 경험을 연구

- 수의주의 **Voluntarism**
- - 모든 심적 활동은 의지에 영향 받음
- - 인지과정은 진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기에 영향받음
- - 인간은 이성적 유기체가 아님

1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트의 이론들의 종합을 살펴보면, 자연 과학과 심리학을 구분했다. 라는 측면과 자연 과학은 외계의 객관적인 대상을 연구하고 심리학은 즉시적인 경험을 연구하고 단지 그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극을 제시하는 상황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자연 과학적인 실험적 방법이 들어간다고 보았지만, 마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내성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주의(voluntarism) 라는 것(자발성 주의)인데, 모든 심적 활동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경험에 의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경험에 대한 인상이 감각 경험에다가 마음의 내용이, 마음의 의지가 기존의 마음의 내용과 연결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의지가(수의적) 개입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 유기체는 아주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트의 이론들의 종합의 요점은 앞서서도 언급한 마음의 요소는 감각 요소로 분석하며 그리고 그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내성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앞서서 1회 차에서도 얘기하고 2회 차 처음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동시대에 있었던 분트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관점의 심리학자들의 생각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2. Wundt의 제자들과 19세기 말의 다른 심리학자들

5-2장 file no.20

2. Wundt 제자들과 다른 학자들

분트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빙하우스(Ebbinghaus)입니다. 에빙하우스는 기억에 관해서 또는 학습에 관해서 언급을 하려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연구를 가장 초기에 가장 많이 연구해놓은 사람입니다.

<Ebbinghaus> :

- Weber-Fechner의 법칙에 매료되어 심리학적 연구
- 여러 정신물리학적 공헌 함
- 기억 연구 공헌
- 이전의 기억과 학습 등 고차 심적 과정들에 대한 연구는 질적 측면에서의 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양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음. 학습의 정도라든가 망각의 정도는 문제삼지 않았음
- -Ebbinghaus가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킴
- Wundt의 방법론은 생리학의 실험 방법을 차용하여 쓴 것인데 반해,
- Ebbinghaus의 출현은 실험심리학 자체의 방법과 문제들을 도입함으로써 심리학의 독립을 꾀함

5-2장 file no.21

독일의 심리학자로 후에 미국에 정착한. 기억 연구의 대가이며 망각곡선 연구로 유명한 에빙하우스 (Hermann Ebbinghaus, 1850—1909; http://en.wikipedia.org/wiki/Hermann_Ebbinghaus; <http://psychclassics.yorku.ca/Ebbinghaus/memory1.htm>)는 분트의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베버와 페크너의 법칙에 매료되어서 심리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정신 물리학적 공헌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 연구에 공헌을 한 것이고, 에빙하우스 이전의 기억과 학습 등의 고차 심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의식의 내용, 마음의 내용을 내성법을 통해서 질적 측면에서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양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다면, 에빙하우스는 양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학습의 정도라든지 망각의 정도를 양적 측면, 양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둔 분트 그룹의 추세를 양적 측면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트의 방법론은 생리학의 실험 방법을 차용해서 쓴 것인데 반해서 에빙하우스의 출현은 실험 심리학 자체의 방법과 문제들을 만들어내어 도입함으로써 심리학의 독립을 굳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강 file no.22

- 실험 방법의 가다듬음
 - 가능한 한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가능한 모든 것은 수량화함으로써
 - 엄밀한 물리학적 방법적 특성을 지닌 심리학적 방법을 확립시킴
 - 관찰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 적용
 - 자료의 변이성 설명 위해 'probable error' 방법 사용.
 -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학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평균과 관찰의 변이도의 과학적 용어로 기술하게 함
 -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변이성의 통제
 - 우리가 미를 측정, 통제 불가;
 - 의미의 복잡성 때문에 진보 못하고 있는 연상/연합 연구에 활로를 터줌
 - 단 두 개의 연상이 아닌 series의 연상을 다룸; 기존 연상의 연구가 아닌 신 연합의 연구
 - backward association

그는 심리학 실험연구에 있어서 실험방법을 가다듬었는데, 가능한 한 모든 요인을 통제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수량화함으로써 엄밀한 물리학적 방법적 특성을 지닌 실험 심리학적 방법을 확립시켰습니다. 관찰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적용을 했고, 자료의 변이성 설명을 위해서 'Probable Error' 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아마도 심리학에서 최초로 실험 연구 결과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에빙하우스의 연구의 한 예는 무의미철자 연구였습니다. 심리학에서 언어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되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측정하거나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복잡성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연상이나 연합 연구가 심리학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라는 물음에서 에빙하우스는 무의미철자(nonsense syllables)라는 그런 심리학 실험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철자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 것을 실험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외의 에빙하우스가 연구해 놓은 결과로는 자극 제시 속도를 실험해서 자극 제시 속도를 표준화 했고, 학습 시간은 자극 목록 길이의 함수라는 결과를 제시했고, 기억범위(Memory Span)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초과학습(over-learning), 그리고 학습할

때의 전략과 효과 등을 연구했습니다.

5-2강 file no.23

- 자극 제시 속도(rate)의 표준화
- 학습시간 = f (자극 목록의 길이) 라는 함수 제시
- 기억 범위(memory span)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함
- **overlearning effect** 확립
 - savings method 개발 - 과학습 정도 측정

23

5-2강 file no.24

- 기억이 단일한 단순 과정이 아님을 보임
- 망각 과정의 양적 조사
- 분산 학습
- **Zeitschrift fuer Psychologie** 잡지 시작
- 심리학 교과서

24

그는 기억이 단순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였고, 또 분산 학습도 연구했고, 그 다음에 심리학 잡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emory'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의 실험 1,2,3,4,5에서 보면 실험 1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측면을, 실험 2에서는 과다 학습 과(OVER) 학습 측면을,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망각 곡선의 문제를, 실험 4에서는 집중 분산의 학습의 문제를, 실험 5에서는 원경 연상의 문제를 다루는 등으로 기억에 대한 최초의 실험 심리학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5-2장 file no.25

- 저술: **On Memory**
 - 실험1 -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학습 목록 길이의 함수
 - 무의미 철자(7음절) 사용
 - 자료의 변이성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으로 통계를 사용함 / 표준편차 대신에 probable error
 - 실험2 - overlearning
 - 실험3 - 망각 곡선 /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 양
 - 실험4 - 집중-분산 학습
 - 실험5 - 원격 연상 / Herbart의 생각을 검증

25

5-2장 file no.26

< G.E. Mueller >

- Goettingen 대학에서 정신물리학 연구논문
- 심리학자 제2호
- 순수실험심리학자 제1호
- 기억 연구 - memory drum처음 만들 - 기억 검사법 개발
- 기억 간섭 현상에 대한 이론 제시
- 망각은 새 재료가 이전 기억에 간섭을 일으키는 까닭
- Proactive interference
 - 과거 학습이 간섭
- Retroactive interference
 - 새 학습이 과거 기억에 간섭
- Conscious attitudes such as readiness, hesitation, and doubt influence learning
- 기억 책

26

이러한 에빙하우스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분트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G. E. Müller 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 제 2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트가 실험 심리학자였기는 했는데, 철학적 이론을 상당히 많이 전개했기 때문에 순수 실험 심리학자로는 Müller가 제 1호이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메모리 드럼’ 연구가 상당히 많이 실험 도구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런 메모리 드럼(기억 자극 제시 도구)을 만들고 기억 검사법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발견은 기억 현상에서 망각 이론을 체계화 했는데 망각에서 간섭에 의한 망각 이론을 체계화 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심리학 책이나 기억 심리학책이나 인지 심리학 책을 보면 순행성 간섭(Proactive interference, 과거 학습이 뒤에 나오는 학습에 간섭을 줘서 망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역행성 간섭(Retroactive interference, 새로운 학습이 이전 학습에 간

섭을 일으켜서 이전 학습에 대한 기억을 망각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분트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트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고, 이 외에도 분트의 제자들이 많이 있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것을 다 언급하지 않고 이 후에 각 주마다 심리학과를 다루면서 조금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연구자들]

5-2강 file no.27

<Franz Brentano>

- 현상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틀을 제시함
 -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1874)
- 형태심리학의 선구
- 심리학의 목표는 관찰: 주관적 경험
- Act Psychology
 - 심리학의 주제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심적 활동
 - 의식은 목표지향적 활동
 - 이는 실증적 방법과는 상이한 연구 방법에 의하여 연구됨
 - 현대 인지과학의 기본 주제인 지향성 개념 제시

27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대표적 학자는 분트와는 조금 다른 심리학을 제시한 - 심리학과 철학의 중간 위치에 놓인 - 현상학적 심리학을 제시한 브렌타노(Brentano)의 입장입니다. 현상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틀을 제시를 했는데, ‘경험적 관점에서 본 심리학’ 이란 책을 1874년에 내어서, 이 후에 나오는 형태심리학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브렌타노는 심리학의 목표는 주관적 경험의 관찰이라고 해서 분트하고 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분트와 달리 강조한 점은 심리학의 주제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심적 ‘활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의식은 목표 지향적 활동에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실증적 방법과는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서 접근, 연구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브렌타노가 제시한 방법, 브렌타노가 얘기한 지향성(Intentionality)의 개념 -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지향한다, 지칭한다. 가리킨다. 표상한다는 이런 개념 -은 현대 인지심리학의 바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지과학 등에서 브렌타노의 중요성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주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객관화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브렌타노의 현상학적 접근은 아직은 심리학에서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2강 file no.28

- 심리적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감각, 느낌, 사고에 공통적인 것은?
- 모든 심리적 사건은 3 측면에서 공통;
 - 1. 심상적 또는 감각적 측면;
 - 2. 판단적 측면 (경험이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
 - 3. 감정적 측면(거의 모든 심적 경험이 쾌-불쾌(사랑-미움)의 측면을 지님)
- 자극이 **presented, cognized, felt, & known**

28

브렌타노는 심리학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면 감각을 느끼는 사고의 공통은 무엇인가 해서 그걸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라고 보았는데, 이 세 측면이 심상적 또는 감각적 측면, 판단적 측면, 감정적 측면입니다.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심리현상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브렌타노는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이 유럽 쪽에서는 일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5-2강 file no.29

<그외의 분트 이후의 유럽 심리학자>

- Carl Stumpf
 - Wundt's major rival
 - *Psychology of Tone* (1883, 1890)
 - 현상학적 접근
 - 내성법에 대한 비판
 - 음악, 청각 이론
 - 정서이론
 - 정서를 감각으로 환원
- 심리현상을 4 범주로 분류;
 - 1. formations: - '빨강에 대한 심상을 떠올린다'에서 그 빨강이란 심리적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특정 대상일 수 있다.
 - 2. relations: (구성주의자들, 요소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된 바)
 - 3. Psychological functions: - 지각, 욕망, 의지
 - 4. phenomena: - 경험의 실제 데이터 - 소리, 냄새 등

29

그 이 외의 분트 이후의 유럽 심리학자를 살펴보면, 슈툼프(Carl Stumpf)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분트의 중요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슈툼프도 브렌타노와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접근

을 제시를 했습니다. 슈툼프는 특히 청각, 소리에 대한 심리학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음악 청각 이론을 제시했고, 현상학적 정서 이론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또 슈툼프는 지각 심리현상을 심상형성, 관계성, 심적 기능, 현상 등의 네 개 범주로 분류하여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5-2강 file no.30

- Oswald Kuelpe
 - Wundt의 opponent
 - 저술: *Outline of Psychology* (1893)
 - 체계적 실험적 내성법 발전
 - 심상없는 사고 imageless thought에 대한 논의로, 내성에 의하여 요소로 분석할 수 없는 의식 경험 논의함
 - 의식의 내용/의미는 감각경험 없이도 존재 가능
 - 이는 분트학파와 대립되는 관점
- Würzburg 학파
 - 심상없는 사고 등을 연구함
 - Karl Marbe, Henry Watt 등

30

그 다음으로 쿨페(Oswald Külpe)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도 분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분트와는 대립적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분트 그룹에서는 모든 의식, 마음의 내용을 감각 경험 요소로, 마음의 요소는 감각 요소가 있고 감정, 정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감각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든 마음의 내용은 감각에 바탕 해 있다고 하여, 감각적 이미지가 모든 마음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트 쪽의 입장이었다면, 쿨페는 감각적 이미지가 없는 사고가(imageless thought) 가능하다는, 즉 의식의 의미는 감각경험이 없이도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분트학파와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분트 학파와 상당히 대립되는 입장을 보였고 이와 관련된 입장이 후에 Würzburg 학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습니다.

5-2강 file no.31

- E. Titchener
 - 분트의 제자인 티치너는 분트의 이론을 보다 좁게 정리하여 구성주의를 형성시킴
 - 심리학의 대상이 의식임을 강조
- 이는 7주차에 다룸
- 이외의 유럽의 다른 학자들의 입장은 형태 주의 심리학과 연결하여 후에 다룰 예정임

3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티치너가 나오는데 티치너는 후에 미국 심리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트의 제자로서 티치너는 분트의 이론을 미국에 수입해서

미국에 전달했는데 약간은 너무 단순화해서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분트 : 종합

5-2강 file no.32

3. 분트: 종합

- *5주 1회차의 5절, 6절 내용 재독, 확인 요함
- 분트 이전에 수많은 과학적 이론, 접근, 사조들, 심리학적 이론과 고찰들이 연결, 통합되지 못한 채 산재하여 개개 사조/개념적 틀로 머물고 영향이 미미하였음
- 분트는 그러한 많은 자료들을 집대성시켜서 실험심리학이라는 체계적 형태로 형성, 제시하였다.
- 그 이후 분트의 광범위한 연구와 저서, 논문들, 실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심리학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 제자들이 그의 이론을 재 확인하고 발전하게 하여
- 심리학이 과학으로써의 확립된 위치를 지니게 하였다.

32

- 심리학이 직접 경험의 과학이라고 생각
- 직접적 경험인 의식 경험을 요소로 분석하고 이의 연결 법칙을 찾는 것이 심리학의 과제
- 이러한 분석과 재통합은 자연과학적 실험법과 내성 관찰법에 의해 수행
- 내성 관찰법은 단순히 영국 연합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내성법이 아니라, 체계화된, 훈련된 내성법
- 실험실에서 실험적 통제에 의해 일어나는 자극의 변화 (자극의 도입, 제거, 자극강도와 질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감각 요소로 분석하는 것이 심리학의 과제
- 그의 실험실 운영과 실험연구(특히 반응시간 연구)는 후대 심리학 연구의 전형이 되었다.

33

분트에 대해서 종합하는 것을 살펴보면, 분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5주 1회차의 5절 6절 내용을, 그러니까 연구 프로그램 내용과 그 요약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트를 종합해서 말하면, 반복해서 애길 했던 것처럼 분트 이전이 수많은 과학적 접근, 이론 사조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조그마한 심리학적 이론과 고찰들이 있었는데,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통합적 체계를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 시켜서 분트가 실험 심리학이라는 과학적, 체계적 하나의 학문으

로 제시를 했죠. 그 이후에 분트가 여러 연구를 하고 이론들을 연구하고 제자들이 그 이론들을 재확인하고 발전해서 심리학이 과학으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분트를 되살펴 보면 심리학이 직접 경험의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직접적 경험인 의식 경험을 요소로 분석하고 이에 연결 법칙을 찾는 것이 심리학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런 분석과 재통합은 자연과학적 실험법과 내성 관찰법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았고, 내성 관찰법은 영국 연합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연합법이 아니라 체계화된 훈련된 내성법이고 실험실에서 실험적 통제, 자극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엄밀하게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직접적 경험을 분석하는데 내성법에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5-2장 file no.34

- 실험심리학을 창시한 분트와 그의 제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구조주의(구성주의)학파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의식 내용이며, 분트와 그의 제자들은 각기 경험의 본태론과 이를 다시 통합하며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각기 경험의 본태론과 이를 다시 통합하며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 심리적 내용을 실험적, 역사적 증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의식 경험 본태론의 실험적 접근 방법이나 심리시간 계측법을 사용하여 심적 활동을 추론하려 했던 그들의 논리나 방법은 후에 인지심리학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 연구 방법론은, 자극 상황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적 반응의 분석에서, 엄밀한 자연과학적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통제적 실험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심적 과정의 분석에는 철학에서 물려받은 내성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 달리 말하자면 심리학의 주제를 다루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과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여러 갈래의 이전의 여러 사조들의 흐름들이 수렴되어서
- 심리학의 주제와 (마음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이의 생리학적 바탕), 분석-이론화 방법 (아이디어의 연합과 의식의 통각 등), 수량화 방법, 경험과학적으로 실험 분석하는 방법 등이 체계화된 틀로 제시되어
- 심리학을 체계화된 경험-실험 과학으로 확립하였다.
- 역사 ← 시대 사조 + 장소 사조 + 천재적 인물의 3요소가 수렴되는 실제 예를 보여준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심리학의 주제를 다루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과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갈래의 이전의 여러 사조의 흐름들을 분트가 수렴해서 심리학의 주제와 분석, 이론화 방법, 수량화 방법, 경험 과학적으로 실험 분석 하는 방법 등을 체계화해서 심리학을 체계화된 경험 과학, 실험 과학으로 확립한 것이 분트의 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

던 것은 여러 시대사조, 장소 사조, 분트라는 천재적 인물의 삼 요소가 수렴, 조합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분트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5주 2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트를 통해서 심리학이 실험 과학, 경험 과학으로써 독립되게 되는 큰 학문적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화론적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러한 분트의 노력을 통해 형성 된 심리학이 여러 이론 체계가 생기고 여러 학파가 생기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주-2회차 학습 정리

- 1. 분트가 제시한 이론체계의 요점을 이해한다
 - 심리학의 주제와 방법론
 - 심신관계
 - 의식과 통각
 - 정서 등에 대한 분트의 이론적 입장을 이해한다
- 2. 분트의 제자들과 분트와는 다른 입장을 전개한 다른 학자들의 주요 주장을 이해한다
- 3. 분트의 공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파악한다